

02 | 문학편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번

(가)

구겨진 하늘은 목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A]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B]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

(가)는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힌 작품으로, 이 창작 장소에 서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묘사한 후, 이제는 낡고 닳은 '고향을 그린 묵화'를 보여 준다. 그 그림은 '띄엄 띄엄 보이는' 조각 그림으로, 화자가 고향을 떠난 오랜 세월을 고려할 때 이 그림 조각들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단편적인 기억이나 인상들을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봄날의 보리밭 정경과 나물 캐고 그네를 타는 소녀들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돈 벌러 항구로 나간 젊은이들 이야기, 힘겨운 노동에도 풍부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 등을 보여 준 후, 강물조차 얼어붙게 하는 한겨울의 풍경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피폐해진 현실 상황

1. 주관이 아니라 객관

일반적으로 긍정과 부정으로 문학을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문학을 처음 접근할 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주관적인 개념인 긍정과 부정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문학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며, 객관적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22. 변형] **묵화**를 중심으로 (가)에서 내용들을 확인하자.

①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노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낸다.

③ (가)에서 ‘묵화’에 ‘솜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 드러낸다.

하늘이 묵은 책을 편 것 같다에서
묵었다는 오래되었다되었다는 뜻이다

박쥐 날개가 보이고, 황혼이 보이니까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니까 호롱불을 켜다.

<보기>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노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畫)** 한 폭 솜이 쳐.

어두워진 모습을 검은 색인 묵화로 설명한다. 솜이 친다는 것은 좀먹는다는 것이고, 좀먹는 것은 낡은 것이다.

선지 1번. 묵화도 검은색이고, 박쥐날개도 검은색, 고향은 저녁이 되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밤하늘도 검은색.

모두 공통적으로 검은색이기 때문에,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이 맞다.

선지 2번. 솜이 치게 때문에 낡은 것이다. 낡은 것은 오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 실제 해당 행 맨 앞줄에서도 묵은 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생각하면, 오래전의 고향을 회상한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더 생각해보자.

고향은 부정적인 것인가? '어두운 분위기'는 단순히 어둡기 때문에 사용한 표현이다.

어두운 것과 부정적인 것은 다르다.

좀먹는 것은 낡았다는 것이고, 묵었다는 표현까지 생각하면 그저 시간이 지났다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좀먹는 것과 부정적인 것은 다르다.

낡은 것과 부정적인 것은 다르다.

오래된 것과 부정적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보기>를 통해, 어떤 대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해달라는 요청이 없는 한,

절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할만한 근거는 없다.

모든 것을 긍정과 부정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극단적 이분법은 생각하는 방식을 단순화 시킬 수 있지만, 생각이 단순화되면, 이분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검은색 아니면 흰색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과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 어차피 말해도 말이 안통할 거니까.

추가적으로 이육사의 초가에 대한 해석을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까지 잡으셨으면 한다.

화자는 고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고향의 상황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여기서 해야 할 것은 '고향'과 '고향의 상황'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고향과 고향의 상황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어떤 연결 관계는 존재할 것이고, 고향이 없다면 애초에 고향의 상황을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고향과 고향의 상황이 동일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감정은 양가적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감정으로 가보자.

감정이라는 게 정말 단순할까?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나?

나는 친구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는 마음은 없나?

아니, 나는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친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다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좋아하면서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친구를 좋아하면서 싫어한다.

이런 감정의 특성을 양가적이라고 한다.

2020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18번

(나)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으리

솔이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

상수리나무 묵은 잎은 저만큼 지네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

지난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으리

그러면 지나온 날들처럼

남은 생도 벽차리

봄이 오는 이 솔숲에서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두리

솔숲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박새들은 솔가지에서 솔가지로 가벼이 내리네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거니는 숲이여 거기 이는 바람이여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뜨리

눈을 뜨리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솔숲에서

- 김용택, 그대 생의 솔숲에서 -

[18. 변형] (나)에 대한 감상은 적절한가?

③ '거기 이는 바람'과 '찬 서리'는 '저 수 많은 새 잎사귀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겠군.

선지 3번, 나는 '솔이파리와 '상수리나무' 묽은 잎이 떨어지는 것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솔이파리와 '상수리 나무' 묽은 잎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는 바람'이여 /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즉, '바람'과 '찬 서리'로 인해 '솔이파리와 '상수리나무' 묽은 잎이 떨어지는 것이다. '저 수 많은 새 잎사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을 '바람'과 '찬 서리'로 지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파리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나는' '바람'과 '찬 서리'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더 생각해보자

나는 나를 버리기 위해서 봄 산에 올라왔다 나는 '솔이파리와 '상수리나무' 묽은 잎이 떨어지는 것에 동질감을 느낀다. 묽었다는 것은 오래되었다는 뜻이고,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다.

이미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 상수리의 묽은 잎도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존재이며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다. 다만 찬서리와 바람은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다.

그걸 시련으로 본다면, 그건 힘들었던 지난날의 시련과 연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련을 나이를 먹고 보니, 모든 것을 버리는 깨달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 어린, 파릇파릇한 이파리에게는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거친 내가 어린잎에 관점에서 바람과 눈서리를 본다면, 그것은 경계할 존재지만, 또 한편으로 묽은 잎들을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봄산에 와서 나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바람과 찬 서리 이후에, '그대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바람'과 '찬서리'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시련을 주는 존재이자,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받아들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정답을 원하는 국어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 대상의 의미가 중의적이고, 우리의 감정 역시 양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 시험에서 설정한 객관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 사실과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3. 누가? 무엇을 했는가?

1, 2단원에서는 시 문제에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혹은, 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다.

이 단원에서는 고전소설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고전소설이 적힌 시대에는 한 개인에게 붙여지는 이름들은 많다.

별호(別號), 명호(名號), 외호(外號), 계급(階級)과 입신양명에 따른 관직(官職) 등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표현들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지금의 시대에서 이같은 표현들은 정말 생소하다.

가능하면 인물의 이름들을 확인하면서

확인을 못하겠다면, 일일이 표시라도 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31번

보기 분석

<보 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관계 01 '수단'과 '목적'

: '인물의 욕망을 실현'과 '음모를 실행함'

: '㉠환상적 요소가 사용,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함'과 '음모의 진행'

관계 02 음모의 실행과 방해

-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이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알,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일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알,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알,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알,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서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며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가?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알,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셋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진누나 소씨**, **외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알,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패약을 떨려 하느냐?”

상서 알,

“어지럽게 굴지 말라.”

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알,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뚫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알,

“굳이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며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알,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별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관계 03

○ 셋째 부인 여씨

△ 둘째 부인 석씨

□ 상서의 서모, 석파

◇ 상서

⬠ 양부인

⬡ 첫째 부인 화씨

▭ 시녀 계성

⊕ 친누나 소씨

▴ 의남매 윤씨

⬡ 여씨 심복 미양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다.

- 주제: 작품을 통하여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사상.
- 구성: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건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
- 문체: 문장에 나타난 작가의 독특한 개성.

주제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이자 이야기이며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성을 짜는 것이다. 즉, 표현 혹은 정보의 인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물은 소설 구성의 3요소 중 하나다.

구성 3요소의 나머지 두 개는 '사건과 배경'이다.

근데 과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인물을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지면 알아서 사건과 배경을 파악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소설에서 난이도가 높은 선지를 구성할 때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시에서도 '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에서 난이도가 높은 선지를 구성할 때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구성하기도 한다.

2015학년도 7월 A 41번 변형

임 이별 하올 적에 저는 나귀 한치 마소
가노라 돌아설 때 저는 걸음 아니런들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리오

- ① 저는 나귀 한치 마소는 다를 절며 느끼레 걷는 '나귀'를 통해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
- ②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은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1번 선지, '이별할 때, 다리를 저는 나귀를 닦하지 말라'는 것은 이별하면서 멀리 떨어지지의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

2번 선지, 어찌 자세히 보리오라고 말하는 자는 화자인 '나'이며,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은 자연스럽게 나와 헤어지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은 감정이입을 통해 임의 암담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결국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